

1.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관련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784)

a. 사람들이 예수에게 행한 것이며 예수님 사람들에게 받은 고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처형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정죄해서 죽게 했다.

이방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를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였다.

한 제자는 예수를 배반했다. 다른 제자는 그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

예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이 요소들은 예수의 고난의 잔 안에 들어 있던 쓰디쓴 물방울들이었다.

b.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경륜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셨으며, 야웨는 그가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

예수는 고난과 죽음에 직면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고 계셨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그 잔을 받으셨다.

예수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의 전 생애와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서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내어맡기신다.

c. 하나님의 뜻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하다. 그는 그의 고난과 죽음을 의식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다.

예수는 자신을 인자라고 종종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지만 또한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씀하신다.

2.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심에 대한 4 가지 견해를 설명하시오. (792)

a. (로마 가톨릭교회)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가셨다.

b. (루터) 그리스도는 장사된 이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서 마귀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파괴하시며, 나아가 마귀의 권세를 제거하셨다.

c. (루터/칼뱅)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신앙고백 조항은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의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던 것을 가리킨다.

d. (웨스트민스터/대요리문답) 그는 장사되었으며, 제삼 일에
이르기까지 죽은 사람들의 영역과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계셨다.

3. 부활의 기독교론적, 구원론적, 교회론적, 그리고 종말론적 중요성
가운데 3가지를 골라서 설명하시오. (809)

a. 기독교론적인 중요성: 부활은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의 부활은 그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b. 부활의 교회론적인 중요성: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회는 바로 부활의 신앙 공동체다.

c. 부활의 종말론적인 중요성: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

6. 보편적 속죄 교리에 대한 반론을 두가지로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866)

a. 이 교리를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증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구원의 성취와 적용은 서로
분리된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이 아니다.

b.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선언하는 것과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7. 보편적 속죄 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구절 5개 가운데 4
개를 골라 이 구절들이 왜 이교리를 오히려 반대하는가를 설명하시오.
(870)

a. 로마서 5-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첫 번째 사용되는 "모든(많은) 사람"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지만, 두 번째로 사용된 표현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b. 로마서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시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가리킨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미리 아신 자들" 및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일컫는 이들을 가리킨다.

c. 요한 1서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화목의 효과는 예수와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룹과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 속죄와 화목은 그들을 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한 대상들에게도 미친다.

d. 골로새서 1-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구절은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이 인용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에 대해서 말한다.